

# 템플스테이, 新브랜드로 변화 추진

## 문화사업단, '아생여당·본디나' 잇달아 선보여

2012년 시즌2를 선포한 템플스테이가 새로운 10년을 위한 브랜드 '아생여당(我生如堂)'과 문화상품 브랜드 '본디나(VONDI NA)'를 각각 선보이고 변화를 추진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은 5월 26일 템플스테이 패밀리 브랜드 출시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브랜드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가장 먼저 눈길을 끈 것은 기존 템플스테이 형태를 변화시키고 이를 브랜드화 한 '아생여당'이다.

'아생여당'은 템플스테이가 수련회 이 미지에서 벗어나 참가자의 문제를 같이 공감하고 불교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열린 공간으로 거듭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문화사업단은 2012년부터 브랜드 체계화 사업을 시작했으며, 2013년에는 시범운영사찰을 선정·건설하고 시범운영을 진행했다. 사전 준비를 마친 '아생여당'은 6월부터 본격 시작된다.

'아생여당'은 '아아(我我)' '생생(生生)' '여여(如如)' '당당(堂堂)' 등 네 가지 템플스테이로 나뉜다. '아아' 템플스테이는 위로로 테마로 하고 있으며, 전북 김제 금산사와 충북 영동 반야사, 충북 보은 법주사, 경북 성주 심원사가 운영사찰로 참여한다. 건강을 테마로 한 '생생' 템플스테이는

불교적 건강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며, 강원 동해 삼화사와 전남 영암 도갑사, 경기 양평 용문사, 경남 산청 대원사가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수행(비움)을 테마로 한 '여여' 템플스테이에는 전남 해남 미황사와 충남 예산 수덕사가 참여하며 꿈을 이야기하는 '당당' 템플스테이를 통해서도 자신감과 용기를 불어넣고 이를 통해 꿈과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 '당당' 템플스테이는 강원 양양 낙산사, 인제 백담사, 경기도 용인 법륜사에서 만날 수 있다.

'아생여당'에서 함께 눈길을 끄는 것은 브랜드 캐릭터들이다. '아아' '생생' '여여' '당당' 등 네 가지 캐릭터를 제작해 각각의 템플스테이가 대중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문화사업단은 지속적으로 개발 중인 전통문화상품의 고유 브랜드 '본디나(VON DI NA)'도 새롭게 선보였다. 이에 따라 6월까지 진행된 불교문화상품 공모전을 통해 상품화된 제품들도 모두 '본디나'의 브랜드를 가지게 됐다.

'본디나'는 한국불교문화의 고유한 문양을 활용한 문화상품 개발과 정체성을 확보하는 데 의미가 크다. 이에 맞춰 '본디나'는 한국 사찰의 문살과 단청 등을 패턴화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새롭게 선보인 템플스테이 패밀리 브랜드 '아생여당'의 캐릭터들. '아아' '생생' '여여' '당당' 등 네 가지 컨셉에 맞춰 템플스테이들이 운영된다.

**'我生如堂'**  
템플스테이 패밀리 브랜드  
'위로·건강·비움·꿈' 의미  
특성화 사찰 13곳 운영해

**'VON DI NA'**  
꾸준히 개발한 문화상품들  
묶어낸 통합 브랜드 '눈길'  
16개 문양 디자인 개발해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새롭게 런칭한 전통문화상품 브랜드 '본디나'.

현재 용문사, 법주사, 범어사 등에서 16개 패턴 디자인을 개발했고, 여권 케이스·네임택·소프트 노트 등에 적용된 제품도 제작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진화 스님은 "행복의 씨앗을 찾아 가꾸는" 템플스테이

브랜드 철학을 바탕으로 패밀리 브랜드를 만들었다"면서 "경쟁사회에 지친 이 시대의 젊은이들과 삶의 저물녘에 있는 실버세대, 이국에서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함께 여어나갈 다양한 템플스테이 면면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동국대, 건학 108주년 기념관 추진

5월 27일 제282회 이사회서 의결... 450억 원 불사

동국대가 건학108주년을 맞아 학교를 대표하는 기념관 건립에 나선다.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회(이사장 정련)는 5월 27일 본관 4층 로터스홀에서 제282회 이사회를 열고 이를 의결했다. 건학108주년 기념관은 연면적 2만6446㎡(8000평) 규모로 불교·연구·문화·예술을 모두 다루는 종합문화시설로 지어진다.



동국대 108주년 기념관 조감도

10월 8일 불사선포식 봉행  
컨벤션홀 등 다목적 활용  
"동국대 새로운 상징 될 것"

총 공사금액 450억 원 이상이 소요되며 기념관 내부에는 1000명을 수용하는 컨벤션홀을 비롯해 불교학술원, 불교학센터, 박물관, 국제센터 등이 들어간다. 700여대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지하 주차장도 마련된다.

108주년 기념관 건립을 위해 동국대는 불사추진위를 구성하고 동문을 중심으로 후원금 모연에 나설 계획이다. 모연은 2단계로 추진되며 10월까지 108억원 이상을 모연한다는 방침이다. 10월 8일 오후 7시 서울 장충동 엠버서더 호텔에서 불사 선

포식도 열린다. 또 11월부터 준공까지는 350억 원을 목표로 10월 25일 오후 3시 동국대 대운동장에서 불사봉행법회를 열고 모연캠페인을 전개한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을 법회 증명법사로, 고문은 이사장 정련 스님과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위촉할 예정이다.

동국대 이사장 정련 스님은 "그동안 종립대학의 위상을 나타내는 상징건물이 없었다"며 "홀어져 있는 불교교육기관과 박물관 등을 모아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의미도 지닌 불사"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는 재직이사 12명 중 9명이 참석했으며 교원인사, 정관변경, 바이오메디칼캠퍼스 바이오관 신축 공사 승인, 2013년 각급 기관 회계 예산승인 등을 위한 안건 통과시켰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한반도 통일 위해 로드맵 재수립해야"

민추본 교류 활성화 좌담회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지홍)가 5월 27일 개최한 '남북불교교류 활성화'를 위한 좌담회에서는 불교계 통일로드맵 전면수정의 목소리가 대두됐다.

기조발제를 맡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남북한 당국의 통일 정책과 연계해 불교계 통일 로드맵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화해협력단계(2000~2021) △국가연합단계(2022~2027) △통일국가완성단계(2027 이후) 등 '불교계 통일 로드맵'을 설명하며, 화해협력 단계와 국가연합단계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국가연합단계에서 각자 대외적 권한을 유지하며 남북불교공동단 협의회와 남북불교 공동사무처 등을 활용한 단계를 지금부터라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 "자연공원 규제 완화보다 보존에 중점을"

조계종 환경위, 30일 세미나  
이병인 교수 "검증 철저해야"  
환경부, '보전 효과' 원칙 고수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과 맞물려 6월 지방 선거 이후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건립이 재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자연공원 케이블카 사업 등 규제 완화 정책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장명)는 5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자연공원과 규제완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병인 부산대 교수(조계종 환경위 부위원장)는 경제적 활성화와 현실적 이용도 중요하지만, 복합유산 자원으로 가치를 보존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자연공원 내 규제 완화 문제는 경제적 목적이나 정권·지자체의 무분별한 공약이 돼서는 안된다"면서 "21세기 국가유산자원의 온전한 관리와 공익성·



조계종 환경위원회는 5월 30일 '자연공원과 규제완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속가능성이라는 큰 원칙하에 철저한 사전검증이 확인된 후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윤주옥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협동총장도 이 교수와 비슷한 입장을 피력했다. 윤 총장은 "자연공원 케이블카 논쟁, 이제 끝내고 싶다"의 제하 발제를 통해 자연공원법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처장은 흥준표 경남지사가 지리산 케이블카를 영·호남에 하나씩 설치할 것을 공약으로 내건 것과 양양군이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사도 설치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예로 들고 "잠잠했던 국립공원이 선거가 다가오며 꿈틀대고 있다. 표가 공백한 사람들이 국립공원을, 지리산을, 설악산을 팔아먹기 시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환경부는 그간 건설된 케이블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에 대한 재논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계종과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환경부는 "환경훼손보다 환경보전효과가 큰 경우 케이블카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만을 고수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 한마음선원 중부경남지원 산사음악회

5월 24일 세월호 희생자위한 천도재도 진행

전국민을 슬픔에 잠기게 했던 세월호 사건 희생자의 넋을 달래는 뜻깊은 음악회가 열렸다.

한마음선원 중부경남지원(지원장 हे보)은 5월 24일 경내에서 '제10회 한마음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헤보 스님, 헤도 스님(부산지원장), 헤술 스님(대구지원장)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참

석했다. 음악회에서는 힐링멘토 정목 스님의 사 회로 중부경남지원 선법합창단과 어린이 합창단, 진주지원 선법합창단이 참가해 선법가를 불렀으며, 최선희 무용단이 세월호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는 공연도 선보였다. 또한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천도

제도 거행했다. 이나은 기자



한마음선원 중부경남지원은 5월 24일 경내에서 '제10회 한마음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 철학, 역사, 문화를 종합무진 오가며 신화에 가려진 인간 붓다의 참모습을 만나다

2012 문광부 우수교양도서 『사찰의 상징 세계』의 저자 자현 스님이 명쾌한 언어로 흥미롭게 풀어낸 붓다의 생애!



이 책에 담겨 있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붓다와 불교 이야기

- 붓다는 4월 8일에 탄신하신 게 아니다.
- 마야부인은 7일 만에 돌아가시지 않았다.
- 녹야원의 첫 설법 장소는 잘못된 것이다.
- '자등명 범등명' 의미는 전혀 다른 것이다.
- 붓다의 탑은 살아 계셨을 때도 유행했다.
- 붓다의 열반일은 2월 15일이 아니다.

불교 전문 사진작가 하지권의 인도 성지 순례 사진 100여 장 수록!

현대적으로 새롭게 해석한 인간 붓다의 위대한 발자취

글 자현 | 사진 하지권 | 352쪽 | 유권리 | 18,000원

# 이것이 불교의 핵심이다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15가지 불교적 성찰

# 놓아버림, 이것이 불교의 핵심이다

『시공 불교사전』의 저자 광철환이 원고지 500매로 압축한 불교의 핵심

충돌하는 욕망과 가치들로 어지러운 상황을 돌파할 방법을 제시하는 '삶을 바꾸는 공부책'



글 광철환 192쪽 | 12,500원